KIDA 안보전략 FOCUS

제26-55호 (2026년 10월 7일)

2026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전재우(junjw@kida.re.kr)

SUMMARY

○ **9월 23~25일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 장치를 늘린 성격'이라고 평가 가능**

○ **화려한 의전과 8가지 합의 사항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쟁점에서 돌파구는 없었고, 공동성명 없이 양측이 각자 성과를 발표하는 선에서 종료됨**

-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무역 휴전 연장임. 부산 합의(2025.10)의 휴전 시한이 2026년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로 두 달 연장됨.
- 미국은 중국의 양보(석탄 구매, 희토류 공급 협의, '초지능(SI)' 대화체)를, 중국은 관계 원칙('존중·공정·상호주의')과 AI와 군사 위기관리 부각함.
- 미국의 공식 대만 정책은 현상유지임. 미국은 "정책 변화 없음"을 밝혔고,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는 5월 이후 보류 상태임.
- 5월 정상회담 관련 백악관 팩트시트에 있던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문구가 이번에는 빠졌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문제 소외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

○ **이번 회담의 성패는 오는 11월 선전 APEC, 12월 마이애미 G20, 2027년 1월 무역 휴전 만료에 이르기까지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 **한국은 '관리된 경쟁' 국면을 전제로 ▲공급망 위험 관리,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외교 선택지 다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회담 개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영접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곳에서 방문 정치 지도자를 직접 맞은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다(교황 영접 사례 제외).[1] 24일

1) Axios, "Trump greets Xi at Joint Base Andrews," 2026.9.23.

백악관 환영식(B-2·F-22 환영 비행)과 오벌오피스 회담, 국빈 만찬이 열렸고, 25일에는 차담과 국립기록관리청 방문이 이어졌다.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은 없었다.

2025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무역 휴전이 합의됐고, 2026년 5월 트럼프의 베이징 국빈 방문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처음 제시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반년 안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2] 이번 방문은 올해 예정된 네 차례 정상회동(5월 베이징, 9월 워싱턴, 11월 선전 APEC, 12월 마이애미 G20) 가운데 두 번째다. 방미 수행단은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란포안 재정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 정부 인사 중심이었다.

주요 합의와 양측 발표문의 차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3]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8개 항 성과'를[4] 각각 발표했다. 같은 합의도 표현과 강조점이 다르고, 한쪽에만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

[표 1] 미국과 중국의 발표문 비교

항목	미국 발표(백악관 팩트시트)	중국 발표(8개 항)
관계 규정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1항)
관세	양방향 각 300억 달러 비민감 품목에 유리한 관세 처우 권고	"300억 달러 규모 상호 관세 인하 협정 체결", 무역협의회 설립(5항)
무역 휴전	-	상무부가 28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확인
구매	미국산 석탄 2027·2028년 각 1천만 톤 이상, 농업 시장접근 워킹그룹	-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부족 해소, "적정 수준" 회복 협의	-
AI	'AI' 대신 '초지능(SI)' 용어 합의, SI 대화 신설(11월), 사고 소통 채널	'AI' 용어 유지, 미·중 AI 대화(11월), 소통 채널(7항)
마약	중국의 물질 지정·전구물질 수출통제, 8월 21명 체포	공동 사건 해결, 양국에서 수십 명 체포(6항)
이란·수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국제수로 통행료 불가	"이란은 핵무기 미개발 약속을 이행해야", 통행료 불가(3항)
역사	2차대전 동맹 상기	2차대전 동맹 상기(4항)
군사	-	위기소통·예방 양해각서 조속 체결, 미군 유해 수색 협력
지역 현안	북한·러시아·이란 논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등 국제·지역 현안" 의견 교환
다자 회의·교류	APEC·G20 참석	APEC·G20 상호 지원(2항), 판다 대여(8항), 미국 청년 10만 명 초청

2) CGTN, "2026 APEC meeting to be held Nov 18-19 in Shenzhen," 2025.12.13.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s a Fair and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Hosting Historic State Visit," 2026.9.
4) 中国政府网, "China, U.S. reach consensus on eight outcomes in Xi's visit," 2026.9.26.

양쪽의 발표를 균형감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내에 내세울 "중국이 무엇을 양보했나"를, 중국은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대등한 강대국 관계"를 앞세웠다. 예컨대 300억 달러는 한쪽 규모이며 양방향 합계는 약 600억 달러이고, 미국은 이를 아직 '권고' 단계로 규정한다. 또한, 농산물 연 170억 달러 구매와 보잉 200대 주문은 5월 베이징 회담의 합의로, 이번 회담의 신규 성과가 아니다.

쟁점별 분석

과거 트럼프는 회담 직전 대규모 관세(2019년 오사카 전 3천억 달러, 2025년 부산 전 100% 추가관세)를 지렛대로 썼지만, 이번에 중국을 직접 겨냥한 관세는 없었다. 다만 회담 엿새 전 서명된 러·이란 제재법이 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5] 이른바 '부산 합의'로 11월 10일까지 유예됐던 조치(미국의 '50% 자회사 규칙', 해운·조선 조치와 중국의 대응 조치)가 2027년 1월 10일까지 다시 유예됐다. 새 무역협의회는 회담 직전 뉴욕에서 허리펑-베선트 채널을 통해 주요 사항이 정리됐다. 관세 인하 목록은 미국 제품 1,600여 개(가금류·유제품·땅콩 등)와 중국 제품 77개(전자레인지·낚싯바늘·조화 등)다. 그리어 USTR 대표는 대중 수출의 약 30%의 시장 접근이 개선된다고 했지만, 2025년 미·중 상품 교역은 약 4,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9% 줄었다(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기준).[6]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도 8월 512톤으로 전월 대비 21% 줄었다.[7] 이는 미국의 방산 업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헤리티지재단은 8월 보고서에서 PAC-3, THAAD, SM-6, SM-3 요격체 재고가 대중국 장기전 소요의 "10% 미만"이라고 평가했다.[8] 미국 국방부 조달규정(DFARS)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서 생산 공정을 거친 희토류 자석이 들어간 품목의 국방 조달이 금지된다.[9] 미국은 MP머티리얼스 지분 투자·가격 하한제(2025.7),[10]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2025.10) 등 다각적으로 대응 중이나 단기적으로 대체는 어렵다. 백악관은 희토류 협의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중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기술경쟁은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희토류"라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구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대화 채널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합의로 평가된다. 냉전기 핫라인에 비유되며 11월 후속 대화가 예정돼 있다. 다만 양국은 2024년 5월 제네바에서 이미 정부 간 AI 대화를 연 적이 있고,[11] 미국은 'SI(super intelligence)', 중국은 'AI'를 고수해 용어부터 엇갈렸다. 트럼프가 회담 직전 "AI를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라고 쓴 반면 시진핑은 "인간의 통제"를 강조했다. 반도체의 경우 백악관과 의회의 시각이 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업계 로비 끝에 엔비디아(NVIDIA) H200의 대중

5) SCMP, "Trump signs bill targeting China's Russia energy imports days before Xi's US visit," 2026.9.
6)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cember and Annual 2025."
7) Bloomberg, "China Rare-Earth Magnet Exports to US Drop Before Xi-Trump Meet," 2026.9.21.
8) The Heritage Foundation, "Theater Missile Defense Inventory: Inadequate for a U.S.-China Conflict," 2026.8.4.
9) DFARS 252.225-7052, "Restriction on the Acquisition of Certain Magnets, Tantalum, and Tungsten."
10) CNBC, "Pentagon to become largest shareholder in rare earth magnet maker MP Materials," 2025.7.10.
11) CGTN, "China, U.S. hold first meeting of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AI," 2024.5.15.

판매를 매출 25% 납부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2025.12 발표, 2026.1 공식화). 그러나 중국 당국이 구매 승인을 제한적으로만 내줘 실적은 미미하다(2분기 H200 대중 매출은 NVIDIA 데이터센터 매출의 1% 미만).[12] 의회에서는 칩 추적, 동맹 장비 통제, 최신 칩 판매 금지 등 초당적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중국에 AI 기술을 넘겨준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막는 대중 투자 제한(2025.1 시행)도 2026 국방수권법(COINS Act)으로 법제화·확대됐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발표는 없고, 퍼듀 주중대사는 9월 25일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관계법, 삼개 공동성명과 '6개 보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운용 면에서는 변화가 있다. 트럼프는 2025년 12월 약 111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2026년 5월 베이징 회담 뒤 "9,500마일 떨어진 곳의 전쟁은 가장 필요 없는 일"이라며 140억 달러 패키지 결정을 미뤘고 이를 "협상 카드"라고 불렀다.[13] 퍼듀 대사는 9월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상 간에 대만 무기 판매가 논의됐다고 인정했다.[14]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1982년 '6개 보장'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반대에 동의했다. 시진핑은 6월 잠정 합의로의 복귀를 지지했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통행료 불가' 조항에는 맥락이 있다. 2026년 7월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가 돼 화물에 20% 통행료를 걷겠다고 발표했다가, 국제해사기구(IMO)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반대하고 중동 동맹이 설득하자 철회한 바 있다. 한편 9월 18일 서명된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러시아산 에너지 5대 수입국 등에 최대 100% 관세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에 중국이 명시돼 있지는 않고 대통령 면제 권한도 있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잠재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15]

지난 5월 정상회담 관련 백악관 팩트 시트는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명기했지만, 이번에는 "북한·러시아·이란 등 국제 현안 논의"만 남았다. 중국도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만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정지 작업, 트럼프의 대중 중재 요청, 11월 APEC 무대 가능성 등의 추측이 나오나 확인된 것은 없다.

트럼프는 환영사에서 플라잉 타이거스를 언급하며 미·중이 2차대전 동맹이었다고 했고, 중국은 이를 합의문 4항에 넣었다.[16] 환구시보는 이를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군국주의 재발을 막겠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했다.[17]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엔에서 제안한 '적국 조항' 삭제를 중국이 거부한 직후이기도 했다.

---

12) TrendForce, "China reportedly to allow Nvidia H200 imports, but approvals may be capped below 200K chips," 2026.7.9.; Roll Call, "AI export controls debate rages as Trump, Xi meet," 2026.9.23.
13) Axios, "Trump waffles on $14 billion arms sale to Taiwan after talking to China's Xi," 2026.5.15.; Fortune, "Trump thinks Taiwan is a 'very good negotiating chip' with China," 2026.5.16.
14) ABC News(AP), "Trump asked China's president if he wanted to buy US arms, ambassador says," 2026.9.27.
15) Baker McKenzie, "US President Signs Russia and Iran Sanctions Bill with New Tariff Powers," 2026.9.
16) 中国政府网, "China, U.S. reach consensus on eight outcomes in Xi's visit," 2026.9.26.
17) Global Times, 사설(2026.9.28). https://www.globaltimes.cn/page/202609/1371446.shtml

백악관 만찬에는 미국 전·현직 CEO 30여 명이 초청됐고, 트럼프·시진핑과 같은 테이블에는 머스크(테슬라), 젠슨 황(엔비디아), 팀 쿡(애플 회장), 리사 수(AMD)가 앉았다. 참석 기업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중국 시장 노출도가 큰 하드웨어·제조 기업이다. NVIDIA, AMD, 마이크론, 퀄컴, 애플, 테슬라, GM, 보잉 등이다. 이들은 수출통제 완화와 시장접근이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시장에 사실상 진입하지 못하는 AI·플랫폼 기업이다.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SI 대화' 의제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결제부문으로 블랙록, 블랙스톤, JP모건, 골드만삭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있다.

반면 BYD, CATL,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인은 공식 수행단과 만찬에 한 명도 없었다. 원인으로는 투자 협상 교착, 軍 연계 기업 배제(예컨대, CATL은 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있음),[18] 백악관의 우선순위 차이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은 없었다. 시진핑이 환영식에서 "중국 기업도 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발언한 대목은 중국 기업이 초청받지 못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종합 평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측 모두 단기적 안정을 얻었지만, 상대의 핵심 압박 수단(미국의 기술통제, 중국의 희토류)은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각각이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을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 비교

구분	얻은 것	얻지 못한 것
미국	석탄 구매·관세 우대·마약 단속 등 선거용 경제 성과, 희토류 공급 협의 채널, AI 사고 소통 채널	희토류·핵심광물에서 돌파구,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 과거 구매 약속 이행 확인
중국	'존중·공정·대등' 원칙 명문화, 관세 충돌 재격화 방지, 대국 위상의 상징적 확인, 희토류 지렛대 유지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완화, 대만 독립 '반대' 표명,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통로

미국 내 반응

미국 행정부는 성과를 강조했지만, 주요 매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가 주류다. 백악관 팩트 시트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내걸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이 이뤄졌다.", "농민들이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어 USTR 대표는 휴전 연장을 "이행 점검 기간"으로 규정했다.

뉴욕타임즈는 AI, 대만, 이란 전쟁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회담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이행한 징후가 거의 없다고도 지적했다.[19]

18) CNN, "Tencent and CATL added to US list of Chinese military companies," 2025.1.7.

CNBC·CBS는 “실속보다 볼거리”, “발표된 성과가 거의 없다”라고 혹평했다.[20] CNN 경우도 “의전은 화려하고 실속은 적었다. 중국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분석을 냈다.[21] AP·워싱턴포스트 등 그 외 주요 매체들 대다수도 핵심 쟁점이 대부분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대부분 초당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공화당의 위커 의원은 “호화로운 환대”에 반대했고,[22] 틸리스 의원은 “독재자와는 더 많은 시간을, 민주국가 지도자와는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비판했다.[23] 호븐 의원은 “중국은 적대국”, 릭 스콧 의원은 시진핑을 “펜타닐로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다.[24] 밴홀런 의원은 권위주의자를 대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대화는 많이, 전쟁은 적게”라며 회담을 지지했다.[25]

중국 내 반응

중국은 이번 방문을 관계 원칙을 확보하고 대국 위상을 확인한 “역사적·이정표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견은 주로 대만 문제와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경계로 표현됐다. 정부 차원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내실을 더욱 확장”하고 “더 분명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26] 중국 상무부는 무역 휴전 연장이 기업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준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9월 28일자 사설을 통해 8개 항 합의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신호”로 평가했다. ‘존중’은 주권·영토 보존과 체제·발전 경로의 존중, ‘공정’은 제로섬 배격, ‘상호주의’는 패권·강압 배제로 풀이했다. 다만 “미국이 관세, 기술통제, 대만 문제 등의 약속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단서도 달았다.[27] CGTN First Voice는 ‘내용 부실’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반박하면서, 성과는 반복적 대화와 교류로 점진적으로 쌓인다고 강조했다.[28] 신화통신은 특집 보도를 통해 “미국 각계가 높이 평가했다”라며 데니스 사이먼(퀸시연구소), 션 스타인(미중무역전국위원회), 딘 베이커(CEPR) 등 우호적 미국 인사를 주로 인용했다. 미국 내 비판 여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29] 특히 중국 매체는 2차대전 ‘동맹’ 서사를 부각했고, 관영매체 계열 계정은 이번 회담을 가장 불편해할 쪽이 다카이치 정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30]

19) Zolan Kanno-Youngs & David E. Sanger,"Flyovers, Pandas and Pomp Masked Divides in U.S-China Summit," The New York Times, 2026.9.24
20) CNBC, "Trump, Xi wrap state visit centered on spectacle over substance," 2026.9.25.
21) CNN, "The Trump-Xi meeting was heavy on pomp, light on substance. China is just fine with that," 2026.9.25.
22) Al Jazeera, "Trump-Xi summit: Four key takeaways from the Washington, DC, meeting," 2026.9.24.
23) Axios, "Tillis rips Trump's Xi meeting as a "WTF moment", 2026.9.25.
24) ABC News, "Trump-Xi takeaways," 2026.9.
25) Al Jazeera, (2026)
26) CGTN, "Chinese FM: Xi's visit sets right path for China, US to get along," 2026.9.26.
27) Global Times, op. cit.
28) CGTN First Voice, op. cit.
29) 新华网,「在中美关系发展史上写下浓墨重彩的一笔——美国各界高度评价习近平主席历史性访问」, 2026.9.27.
30) CNBC, "Trump-Xi summit analysis: 'Tangible outcomes' needed for U.S.-China truce to hold," 2026.9.28.

향후 전망과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관리된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1월 중간선거부터 2027년 1월 10일 무역 휴전 만료까지 분기점이 몰려 있다. 이 밖에 11월 중 미·중 AI(SI) 대화 후속 회의(날짜 미정)와 2027년 가을 중국 제21차 당대회가 있다.



[그림 1] 미·중 관계 주요 일정

크게 볼 때 두 가지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관리 국면의 지속이다. 양국이 APEC, G20에서 추가 스몰딜을 내고 휴전을 다시 연장하는 경로다. 미국의 희토류 대체 공급망이 단기간에 갖춰지기 어렵고, 양국 모두 충돌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경로는 긴장 재고조이다. 중간선거 뒤 대만 무기 판매 재개, 러·이란 제재법의 중국 적용, 무역 휴전 만료 후 관세·수출통제 재개, 자석 금지 시행 전후 중국의 희토류 공급 조절이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과거 2017년 11월 자금성 환대 뒤 수개월 만에 301조 관세가 부과된 선례도 있다. 따라서 예상 관전 포인트는 석탄·농산물 등 구매 약속의 실제 이행,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량 추이, 140억 달러 대만 무기 패키지에 대한 결정, 러·이란 제재법의 중국 적용 또는 면제 여부, AI(SI) 대화의 실제 개최와 사고 통보 채널의 작동 방식 등이 될 것이다.

미·중 경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관리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은 “미·중 갈등은 계속 커진다.”라는 전제도, “화해가 온다.”라는 전제도 아닌, 타협과 대립이 반복되는 변동성을 기본값으로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무역, 공급망, 제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희토류는 미국조차 단기간에 대체하지 못하는 중국의 지렛대이다. 의존도 점검, 비축 확대, 호주 등 제3국 조달·재활용 투자가 필요하다. 2027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방부의 중국산 자석 금지가 시행된다. 미국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적용 여부와 대체 조달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의 요격체·무기 재

고 부족은 한국 방산에는 협력의 기회로 살릴 여지가 있다. 무역 휴전은 1월 10일까지다. 재연장과 관세 재개 두 경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수출·우회 수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관세 우대 목록에는 미국산 화장품·의료기기·수산물이 들어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이어서 세부 품목 대조가 필요하다. 러·이란 제재법의 2차 관세 조항이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경로에도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행·면제 동향을 추적해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백악관은 거래에 열려 있지만(H200 판매 허용), 의회는 통제를 법제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동맹국 장비업체의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두는 법안은 한국 기업과 중국 내 생산시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부 발표뿐 아니라 의회 입법 동향을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AI 위기관리 대화를 시작한 만큼, AI 안전·거버넌스 규범 논의에 한국이 참여할 다자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일 수도, 한반도가 미·중 의제에서 밀려난 신호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미 사전 조율 채널과 한중 채널을 동시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구상과 제안 역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11월 APEC 전후 북미 접촉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북한과의 사건사(事件史)적인 충돌이 구조적인 관계 개선 노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메시지 전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연이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라고 부르면서 정상 간에 논의했다.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 사안이 대중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이 항일 연대를 부각하는 가운데 중·일 갈등이 커지는 국면이 관찰된다. 한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 문제가 진영 논리에 흡수되지 않도록 독자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편집: 오은주 연구원(eunjuoh@kida.re.kr)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원고 인용 시 **저자. (발행년도). 「원고제목」『KIDA 안보전략 FOCUS』. 한국국방연구원.** 형태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